

# 예배순서

말씀  
산책

*경배와 찬양	소원/예수 좋은 내 친구/예수보다 더 큰 사랑 주를 더욱 사랑/나의 하나님	다같이
대표 기도		조민영
*성경봉독	창 40:20~41:1	장대훈
말씀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이레 목사
응답찬양	은혜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환영		조혜연
*파송찬양	하나님의 나라	다같이
*축도		노이레 목사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준비하신 헌금은 입구의 헌금함 또는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 40:20~41:1)

20제 삼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21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1 만 이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꾀족 자기가 나일 강 가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은혜중 큰 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정의 근원과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 열정은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소상 중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 열정보다 중요한 열정의 근원을 확인함으로 이 열정의 바른 방향을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시절은 사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자기애가 큰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형들과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 했으나, 잘 어울리지 못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성이 조금 떨어진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모든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독차지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두번이나 꾸게된 자신이 모든 가족들 앞에서 높아지는 꿈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견디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으려 나름대로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큰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이집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의 종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열정으로 살아갔기에 그는 온 집의 모든 사람들과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성범죄 미수범이라는 죄명으로 감옥에 갇혀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하고 성실한 열정으로 인해 결국 요셉은 감옥에서도 감옥의 모든 행정일과 감옥의 모든 열쇠를 관리할 정도로 큰 신임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왕을 보좌했던 두 관원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요셉을 신임했던 그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창 40:12~14) 그러나, 그 때에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능력인듯 그 관원에게 꿈해석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된 관원은 요셉이라는 존재와 요셉의 요구를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에, 요셉은 그의 인생 중 가장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에게 가장 큰 시련은 외부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환경보다, 그의 마음에 그의 꿈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험한 인생에서 가장 큰 기대가 사라졌을 그 때에, 그는 지금까지 붙잡았던 꿈과 희망까지 모두 사라진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기간이 명확히 2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나, 그것을 알리었던 요셉은 스스로 큰 고통과 절망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과 희망과 비전도 무너진 그 시간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절하고 가치없는 현실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앞에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자였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요셉에게는 큰 고통의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을지 모르나, 그는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이기적이며 자기자신의 빛난 꿈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자신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는 그 비참한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참 겸손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뒤에 감추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바로 그 아름다운 것을 요셉의 중심에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아팠지만 침묵하시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비로소 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집트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창 41:1) 그리고, 꿈 해석을 위해 바로왕 앞에 섰던 요셉의 태도는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세상 권세를 쥐고 있던 애굽 왕 앞에서 요셉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능력을 가졌는지 어필함을 통해 자신이 이익을 가지려는 기회로 삼지 않고,

그는 자신을 감추이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참된 겸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 41:16)

이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당시의 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또한 가나안에 살던 아버지와 형제들 모두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 자신에게 끔찍한 유년시절을 선물했던 형들에게 끔찍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이유와 힘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었으나, 그는 그의 형들 앞에서도 당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고 준비시키셨다는 믿음의 선포를 함을 통해, 우리는 그가 분명히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주신 열정은 참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리고 열정의 목표가 자신을 감추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열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열정이라는 은혜를 주신, 모든것의 근원이시며 목적이시며 내용이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나의 모든 것과 나의 열정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뒤로 감추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알하고, 살아내고 숨쉬므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나눔 질문

1.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나를 감추인다는 의미에 대해 깨달은대로 나누어 주세요.
2. 나의 삶속에 새겨진 생각과 가치관과 태도들 속에서 혹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모습이나 성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주세요.
3.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4. 그러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와 지역과 세상에 넘쳐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 응답찬양



###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설교말씀 질문QR

## 파송찬양

###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렵 사라져  
내 안의 주의 나라 이루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 광고

AKPC PSALM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주일 예배 안내 및 협조부탁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부터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가급적 5분 전까지 착석해서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과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 뒷좌석 가운데쪽은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팀 신청 QR 예배팀 신청 QR

### 팀원 모집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 김윤환)  
찬양팀 - 여 싱어, 건반, 드럼 (문의: 전하영, 전승엽)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 기획팀원 모집

청년부의 각종 행사들을 함께 계획해주시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을 아래 포지션으로 초청합니다.  
(지원 및 문의: 총무 원태연 혹은 주변 리더들)  
- 디자인: 2명 / 로지스틱스: 2명 / 영상제작: 2명  
- 커뮤니케이션: 2~3명 / 이벤트 코디네이터: 2~3명

### 여름을 이기자! 아이스 스케이팅

- 일자: 7/27(토) 2-4pm
- 대상: 희망자 전원
- 참가비: 입장료(\$12) + 신발렌트(\$6)
- 카풀신청 가능 (신청폼 카톡방 게시 예정)
- 문의: 최조나단 형제

### Psalm 여름사역 일정 나눔

- 현 목장 마지막 목장모임: 7/28 (목장체제는 8월말까지 유지)
- 새가족 환영회: 8/4
- Interim 소그룹 모임: 8/11, 18 (전체 다과 제공)
- 소그룹 모임 휴식: 8/25
- 차기 목장 개학: 9/1부터 (신임 리더체계 출발)

### 2024 Psalm 국내 아웃리치

- 시기: 11월말 Thanksgiving 주간 전후
- 장소: 달라스/포트워스 일대
- 사역내용: 난민 자녀 대상 캠프 운영 사역
- 주님의 사랑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는 데 관심있으신 청년분들을 찾습니다.  
(문의: @최송석 부간사 및 아웃리치 팀원 누구에게나)

### 2024 제자훈련 제 1기 훈련생 모집

- 훈련기간 : 9월 2주 ~ 25년 5월말(9개월)
- 대상 : 장로특별반, 남성반, 여성반 (각 8명 내외)

### 전교인 구약 통독

- 열왕기상 6장 ~ 열왕기하 11장

### 환송

- 임은지 (달라스로 이주)

### 2024 여름 새가족 환영회

- 8월 4일 (일) 3:30PM
- 장소: 1층 친교실



환영회 신청 QR



#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2pm
금요기도모임	금 8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제 52권 28호  
7/14/2024

# PSALM

PRAISE GOD IN  
EVERYDAY LIFE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YOUNG ADULT  
MINISTRY



예수산책,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AKPC 마 16:24

THEN JESUS TOLD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이성민	seongminlee123@gmail.com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새가족팀장	박사론	Sp9316@gmail.com
라이드팀장	김윤환	michaelsdogani@gmail.com

# 양육과정안내

##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instagram | @akpc\_psalm  
facebook | akpc 청년부